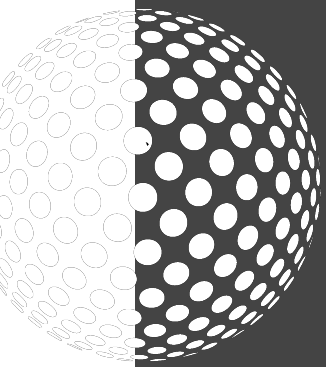


# CALL2ALL 777

편찬 | 데이비드 해밀턴



## 여는 말

스티브 더글라스 박사가 마크 앤더슨을 돌아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 두 단체에서 나머지 미 전도 그룹을 담당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들은 2000년 8월 초 빌리 그레함 협회에서 주최했던 암스테르담 세계 복음전도자 대회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만여명의 복음전도자(선교사)들이 각 나라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티브와 마크도 이 대회에 초청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600여명의 대표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어떻게 하면 지상 대명령을 완수할 수 있을까?”라는 선교에서 가장 크고도 중대한 사명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매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회 삼일째 되는 날, 교회 역사에서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252개의 미개척 미전도 종족의 명단이 공개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리더들에게 한 종족 이상 선택하여 복음을 전파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첫 140개의 종족은 그 자리에 있던 여러 단체에 의해 빠르게 선택받았지만, 가장 어려운 나머지 종족들은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아무도 선택을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더글라스 박사가 마크 앤더슨을 돌아보며 “국제대학생선교회(Campus Crusader for Christ, CCC)와 예수전도단(Youth With A Mission, YWAM)에서 나머지 그룹을 담당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라고 물었습니다. 마크가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마크 앤더슨) 스티브의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제 삶에서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며 선교사로서의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암스테르담 대회 이후, 스티브와 저는 우리와 함께 이 종족들을 대상으로 함께 일 할 소수의 리더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우리가 앉았던 자리의 번호를 따서 '테이블 71'이라 명명했습니다.”

“또 다른 중대한 사건은 국제대학생선교회의 창시자인 한 빌 브라이트 박사가, 지상 대명령의 완수를 위해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것을 꿈꾸며 Global Pastors Network(GPN)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여러 일을 통해, 2007년 1월 제가 이 단체의 대표가 되었고, 또한 동시에 GPN의 비전이 더욱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만 함께 일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현장에서 뛰는 믿음의 리더도 이 사명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2007년 5월

에 탄생한 call2all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2007년 초, 하나님은 저에게(마크 앤더슨) 너무나 강하고도 중요한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섯 시간에 걸친 개인적이고도 주권적인 놀라운 체험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call2all의 사명을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연합’장인 요한복음 17:1절에 나오는 구절인 ‘아들이 영화로워질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으로 일련의 모든 경험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call2all운동에 주신 사명은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며 지상 대명령을 이루는 것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2008년 1월에 열린 첫 call2all 전략회의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의 완수를 위해 기독교 리더들이 더 높은 차원의 파트너십을 세우는 것에 중점을 맞추었습니다. Call2all의 비전과 목표는 전 세계 리더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였고, 1,400개의 단체에서 총 28,000명의 대표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지난 call2all의 전략회의

- 2012 Paraguay Congress, Nov
- 2012 Kansas City Congress, Sept
- 2012 Western European Congress, April
- 2012 Philippines Congress, Cebu, Mar
- 2011 LA Global Congress, Long Beach, Nov
- 2011 Indonesia Congress, Jakarta, May
- 2011 Malta Congress, Jan & Feb
- 2010 Colombia Congress, Nov
- 2010 Amsterdam Consultation, Nov
- 2010 America, Cincinnati, Ohio, Mar
- 2010 Middle East, April/May
- 2010 Next Generation, New Zealand, Jan
- 2009 Euraisa Congress, Kiev Ukraine, Sept
- 2009 Pacific Congress, Kona, Hawaii, July
- 2009 Global Congress, Hong Kong, June
- 2009 West African Congress, Port Harcourt, Nigeria, May
- 2009 South America, Curitiba, March
- 2009 North America, Dayton, Ohio, Jan
- 2008 North America, Toronto, Oct
- 2008 East Africa Congress, Kenya Nairobi, Oct
- 2008 North America, Orlando, Jan

### 내용

- 1 여는 말
- 2 7개의 주요 전략
  - 2.1 성경부족 현상의 근절
  - 2.2 기도운동의 강화
  - 2.3 복음전파의 가속
  - 2.4 강력한 공흥의 실천
  - 2.5 미개척 미전도 종족의 변화
  - 2.6 구전언어 사용자 채택
  - 2.7 모든 사회영역속에 교회의 존재성 확립과 성장
- 3 7개의 사회의 영역
  - 3.1 가정
  - 3.2 정부
  - 3.3 경제 (과학/기술/비즈니스)
  - 3.4 종교
  - 3.5 교육
  - 3.6 미디어
  - 3.7 축제 (예술/엔터테인먼트)
- 4 지리학적으로 본 전세계
  - 4.1 241 개의 나라
  - 4.2 4k 지도 오메가 존
  - 4.3 4k 지도 플러스
  - 4.4 공동체
  - 4.5 이웃
  - 4.6 가정
  - 4.7 개인
- 5 마치는 말

call2all 777 is a living document designed to educate, encourage and stir up missional thinking on how to work in all spheres of society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 7개의 주요 전략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2:7, 11, 17, 29 ; 3:6, 13, 22)”. 아래에서 앞으로 나누게 될 전략적 주제는 call2all에 의해 지속해서 발표된 주제로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이 현대에서 전략적이며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 먼저 초대교회의 지도자처럼 기도와 말씀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행 6:4). 사도바울이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딤후 4:5)”고 권면한 것처럼, 먼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 call2all 운동의 가장 첫째 되는 전략적 주제인 이유입니다.

1. 성경 부족현상의 근절
2. 기도운동의 강화

다음 두 가지의 전략적 주제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사랑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육신을 보살피시고, 또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한 손에는 진리를 선포하는 데 헌신하고, 다른 한 손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헌신**합니다.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는 교회는 성스럽고, 세상은 세속적이라는 식으로 구별하는 성숙이분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명령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딤후 4:2) 순종하며, 동시에 우리는 성경에서 지시한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속 7:9)’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든 이에게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벧전 2:9)’ 이 혁신적인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또한 실천해야 합니다.

3. 복음 전파의 가속
4. 진정한 긍휼의 실천

우리는 마지막 call2all의 주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자주 외면 당해온, 세 가지 그룹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그룹**은 지구 위에 존재하는 5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미개척 미전도 그룹입니다. 10년 전 자료에 의하면 미개척 미전도 종족 민족-언어 그룹이 천 개를 넘었으며, 그 총 인구는 약 5억 명에 다다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문자적인 미전도 미개척 그룹이라는 의미 이상을 가집니다. 참 의미는 2000년 동안 누구도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았고 또한 계속해서 소외되었다는 말입니다. 지난 몇 년간 call2all에서 이를 계속해서 다루었고 이 때문에 잊었던 많은 이 그룹들이 수면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여러 곳에서 승전고를 울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그룹**은 바로 구전 언어 사용자 그룹입니다. 이들은 근래에까지 교회사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했으며 현재 복음이 닿지 않은 그룹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글을 읽지 못하고, 읽지 않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그룹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구전 언어 사용자를 우리의 복음 전파 전략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들은 미개척의 그룹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그룹**은 교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있으나, 한 번도 주일 예배에 참석해 보지 않은 사

람들 그룹입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들고 직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들과 만나지 않는 이상, 이들에게서 교회는 계속해서 의미 없는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삶을 이루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7가지 사회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메가톤급의 많은 사람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지상명령 완수를 향해 달려나가는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위의 세가지 것을 종합한 call2all의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5. 미전도 미개척 그룹의 변화
6. 구전 언어 사용자 채택
7. 전 영역에 교회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성장

## 1. 성경 부족 현상 근절

존 스코트 목사는 성경이 없이는 전 세계의 복음화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6,860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2010년의 9월 까지의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2,565 (37.4%)의 언어로 성경책이 보급 되어 있다.
- ✓ 2,217 (32.3%)의 언어가 현재 번역의 과정상에 있다.
- ✓ 2,078 (30.3%)의 언어가 번역을 위해 채택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통계의 의미는 3억 4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기가 바뀌는 시점에서, 위클리프는(성경번역단체)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언어의 번역 작업의 시작이 2150년에서야 이루어 질 것이라는 리포트를 받았습니. 위클리프는 이러한 평가를 스스로 받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모국어 성경을 150년 후에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긴급성을 상기하며, 다른 방식으로 “2025년까지 모든 언어 번역 착수”를 목표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지구 상의 모든 사람의 손에 모국어로 된 성경이 주어지도록 하는 이 작업은 결과적으로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접근 방식 그리고 선교 단체의 협력들을 통하여 엄청난 가속을 낼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에 의해 설립된 시드컴퍼니는 9년 안에 200여 개의 언어의 성경 번역 착수를 목표로 일했으나, 실제로 그 일은 5년 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그들은 바로 다음 200여 언어 번역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지난 4년간 아직 생각지도 않았던 300여 개의 언어 번역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작업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상명령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는 최초로 전 지구의 모든 사람이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거나 혹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번역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한번 번역이 이루어지면, 이는 반드시 출판되고, 보급되며, 사용돼야 합니다. 이러한 순차적인 실행이야말로 성경 부족 현상의 근절을 향한 꿈의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번역된 성경의 보급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Faith Comes by Hearing” & “You Version” 등의 단체들은 신기술을 사용하여 많은 이들에게 성경과 오디오 성경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쁜 소식은 “예수” 영화가 2011년 10월 25일까지

# 7개의 주요 전략

총 1,121개의 언어로 보급 및 상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들으며, 나아가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 약속 센터(the Center for Bible Engagement)의 조사에 따르면 “믿는 자 중에 성경을 한주에 4번 이상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차이란 사람들의 도덕적 행동양식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데까지 이르는 변화를 말합니다.

로렌 커닝햄의 책인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어떤 나라라도 바꾸는 성경의 능력’에 따르면 성경은 개개인을 바꿀 뿐만 아니라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한 새로운 변화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성경번역: [www.theseedcompany.org](http://www.theseedcompany.org); [www.wycliffe.org](http://www.wycliffe.org); [www.wycliffe.net](http://www.wycliffe.net).

성경보급: [www.bftw.org](http://www.bftw.org); [www.jesusfilm.org](http://www.jesusfilm.org); [www.scripture-engagement.org](http://www.scripture-engagement.org); [www.faithcomesbyhearing.com](http://www.faithcomesbyhearing.com); [www.walkthru.org](http://www.walkthru.org); [www.youversion.com](http://www.youversion.com); [www.backtothebible.org](http://www.backtothebible.org).

성경부족 근절 관련 비디오:

<http://conversation.lausanne.org>  
제목: Scripture in Mission

## 2. 기도운동의 강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정을 품은 사람들이 이젠 선포자들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열방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난 두개의 줄기인 기도운동과 선교운동의 하나로 모여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마이크 비클의 메시지를 읽거나, 보거나 들어 보십시오. “The Convergence of the Mission and Prayer Movements” (<http://mikebickle.org/resources/category/ministry-outreach/great-commission>)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영적 대각성이 있었을 때 마다 이러한 일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18세기 초반 유럽에서도 진젠도르브의 리더십 아래 있었던 모라비안들이 처음으로 개신교의 선교운동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또한 24시간 7일 기도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헤르넷에서 시작된 24시간/7일 기도운동을 거의 100년 이상을 지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열정적 기도운동이 선교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도원은 정말 전설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약 7백만 명의 믿는 자들이 한곳에 모여 철야 기도를 했으며, 부레노르 아이레스에서는 많은 사람이 대통령 궁의 맞은 편에 유명한 마요 프라자의 시계탑 앞에서 기도 모임을 합니다. 매년 세계기도의 날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영국에서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24시간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타오르고 있고 이집트에서는 역사적으로 놀랄 만큼의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 미국에 걸쳐 많은 젊은이들이 “더 콜(The Call)”의 기도 성회에 모여 증보하며,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금식하는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들은 당연한 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사 56:7, 마 21:13, 막 11:17, 눅 19:46).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임무를 주셨습니다(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막 1:17).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삶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삶이 예수님의 사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나 그 기도를 배우길 소원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첫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 였습니다. 분명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영적 리더들이 선교의 자리에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교회는 전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는 추수할 영혼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금식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잭 헤이포드, 창립 목사, 길 위의 교회)

“지상명령 완수를 위해서는 끊임 없이 이어지는 금식기도가 필요합니다. 수백만 명의 영혼에게 나아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일은 바로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빌 브라이트, 창립자, CCC).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그저 꿈으로나마 짐작할 뿐입니다.”(프로이트 맥크렁, 창립자, 올네이션)

“철저하게 복음이 막혔던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강력한 진도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산산조각이 납니다.”(제리 라킨, 땅끝까지 이르러, p18)

다음과 같은 책을 참조하십시오.

Fire & Frangrance, by Sean Feucht and Andy Byrd.  
Not by Might Nor by Power, by Graham Power and Diane Vermooten

그외 자료: [www.ihop.org](http://www.ihop.org), [www.globaldayofprayer.com](http://www.globaldayofprayer.com), [www.ipcprayer.org](http://www.ipcprayer.org)

## 3. 복음 전파의 가속

복음전파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분의 초청에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될 이들에게 “회개하라... 믿으라... 오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1:15,17).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초청을 보기 좋게 꾸미지 않으셨으며, 제자들이 순종하도록 하늘의 축복을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것에 대한 대가를 강조하셨습니다(막 8:34-38). 그분의 요구는 무조건 적이었고,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전적이며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은 아주 확연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분과 함께 있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기 위한 것(막 3:14)”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첫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오직 한 가지 약속은 그들이 변화를 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막1:17). 이 약속은

# 7개의 주요 전략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을 추구하면 그분은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을 바꾸실 것이고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사실 앞에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 증거는 세계 전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세기가 좀 넘어서기 전에 아프리카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사하라 사막의 이남 지역에서는 인구의 반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백 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헌신했던 한 사람이 이제는 천오백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님은 운행하시며, 예수님은 승리하고 계십니다! 1900년도에 한국에서는 믿는 자들이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거의 인구의 삼분의 일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말에 중국의 신자 수는 단지 삼백만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1억 5천 명에 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전고 소식은 네팔, 인도네시아, 부탄, 캄보디아, 이집트, 인도, 그리고 그 이상에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 세계 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를 격려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소식으로 사기를 충전하십시오. 하지만 안도하지는 마십시오! 지금은 속도를 낼 때입니다. 복음 선포의 최상의 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수준의 헌신과 집중, 열심과 열정이 절실합니다. 예수님의 이 소망의 구속 역사를 계속해서 듣기 위해, 이제 새로운 전략들과 혁신적인 기술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왜 세계 복음전파라는 숙원이 이 수많은 세대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역자: 교회)에서 잊혀져 갔을까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목표를 높게 잡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을 우리 세대 내에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최소 한 번이라도 듣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훌륭한 정의이며 아주 대담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 효과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다음의 두가지 사실들을 생각해봅시다. 첫째, 대다수의 사람은 열여덟 살 정도의 시기에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후에 영접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10대 혹은 20대 초에 예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둘째, 많은 사람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기 전에 최소 세 번 정도 복음을 접합니다. 결론을 내려봅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취해서 계산해 봅시다. 사람들은 열여덟에서 스물네 살 정도에 예수님께로 온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최소한 세 번 정도 들을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는 지구 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매 육년에서 팔 년마다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우리는 지상 대 명령 완수를 향해 조금 더 나아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현재의 방식과 생각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복음전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엘리아가 결정적인 시간에 “허리를 동이고(왕상 18:44-46)” 전과 같지 않게 달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도 그와 같이 되도록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올림픽 선수처럼 우리는 “상급을 받기 위해 이와 같이 달려(고전 9:24)”야만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경주이며 지금은 세계 전역에서 복음전파의 성장에 대한 모든 기록을 정비할 때입니다. 이 땅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 4. 강력한 공홍의 실천

현대 시대에 교회 내에 나타난 이분법적 논리가 교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약화시켰습니다. 이 분열은 복음주의자와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서로 대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교회가 지상명령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영은 곧 교회의 의미를 재확인하기 시작하였고, 둘 다 중요한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진술하였듯이, “**믿음은 그 자체로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가 하는 것에 의해 내 믿음을 보여 줄 것이다(약 2:17-18).**”

20세기 후반에 이 두 가지 관점의 균열 사이에서 그 방안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스위스의 로잔에서 열린 첫번째 세계복음회의에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한 선교적 표준 문건이 작성되었고,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진술이 있었습니다. 아래의 진술을 참조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타고난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누구나 착취당해서는 안된다. 이 점을 우리는 등한시하여 왔고, 또는 복음전파와 사회 참여가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하여 참회한다.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니며, 사회 행동이 곧 전도는 아니며, 정치적 행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가지 임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 두가지는 다같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교리,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필수적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 인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전파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가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충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로잔언약, 5장,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십오 년 후에 많은 세계의 기독교 리더들이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회 로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초기의 언약을 좀 더 공고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되,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의식주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봄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우리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복음증거와 사랑의 봉사로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마닐라 선언문, 고백 8, 16)”

“우리의 주된 관심은 복음에 있으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우선이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到來)를 자비와 능력의 역사로 보여주셨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병자를 돌보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갇힌 자들을 살피며, 억울한 자와 장애우를 도와주며, 억압당하는 자들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 영적인 은사가 다양하고, 소명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복된 소식과 선한 행위는 분리할 수 없음을 믿는다. **(마닐라 선언문, 4장, 복음과 사회적 책임)**”

우리는 이제 복음의 두 가지 측면, 즉 진리의 선포와 사랑의 표현 모두를 가지고 움직일 때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 7개의 주요 전략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8).”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보다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더 고려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보여주는 긍휼과 사랑의 표현들이 자주 복음전파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한 행동 자체만으로도 상처받은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36)”고 명하셨고, 영국의 유명한 부흥인도자인 존 웨슬리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하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선한 일을 하라, 모든 곳에서 선한 일을 하라, 모든 때에 선한 일을 하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선한 일을 시작합시다!

## 5. 미개척 미전도 종족의 변화(UUPGs)

세계 복음전파를 위한 1974년 국제 로잔 회의는 이 세대에서 선교의 방향을 바꾸는 새롭고 전략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랄프 윈터박사와 도날드 맥가란은 회의에서 처음으로 “미개척 종족”에 대한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랄프 윈터 박사의 글을 읽기 원하시면 [www.youtube.com](http://www.youtube.com)에 있는 랄프 윈터의 “Unreached Peoples and Beyond(1974부터 지금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선교활동의 증가는 선교 전략가들을 등장시켰고, 이들은 민족-언어를 통합한 새로운 구분 방식을 통하여 전 세계의 필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로, International Bission Board(남침례교단 국제 선교 사역부)의 오퍼레이션 월드, 여호수아 프로젝트, 세계 기독교 자료, CPPI는 선교사의 도움 없이 도착 교회가 자생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전 세계의 그룹들의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상명령이 주어진 후 2000년 후에 발생한 이 운동과 많은 다른 움직임들은 20세기 후반의 4/4분기 선교활동을 놀라게 증가시켰습니다.

수많은 진보가 이루어졌음에도 새 천 년이 되는 지금, 여전히 미개척 종족이 6,750개에 달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던 암스테르담 2000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 아직도 개척이 필요한 수많은 종족에 대한 정보가 발표되었습니다. 209개의 나라와 구역을 대표하는 10,287명의 전도자와 다른 참가자들이 이 역사적인 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 대회 중에 약 600개의 교회 대표들과 선교 전략가들은 75개의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느 오후, 폴 에실먼(예수 영화 프로젝트의 설립자)과 브루스 윌킨슨(한눈에 읽는 성경 저자)의 사회로 진행된 한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252개의 가장 큰 미개척 종족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들은 1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복음을 접한 적도 없고, 복음이 들어갈 계획조차도 없는 종족 그룹이었습니다. 발표 후 사회자들은 이들을 향해 나아갈 리더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아들여 많은 종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금세 일의 진행이 멈췄고 절반 정도의 미개척 종족들이 어느 사람에 의해서도 채택 받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은 이 세대 선교 역사 속에서 가장 신나는 순간 중의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사이트

[www.finishingthetask.com/videos.html](http://www.finishingthetask.com/videos.html)를 방문해서

“History of table 71”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UUPG(Unengaged People Group) 운동의 결과를 가져왔던 일들의 시작과 인상적인 역사적 결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만 말하자면, 75개 중 한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들이 남은 미전도 종족의 수가 0(ZERO)가 될

순간을 꿈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은 전략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었으며, 지금의 Table 71팀을 이루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대회 후 이 팀은 매해 세 번씩 함께 모여 0(ZERO)이라는 한가지 목표를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Table 71에 의해 시작된 사역 중 하나가 Finishing the Task(이하 FTT)입니다. 이 FTT는 2005년 11월 북 캐롤라이나의 애쉬빌에 있는 더 코브(The Cove, 빌리 그레함의 훈련 센터)에서 Table 71팀의 후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 이들은 더 자세한 조사를 통해 암스테르담에서 사용된 252개의 10만 인구 이상의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하 UUPGs)의 목록을 639개로 수정했습니다. 그 후로 이 UUPGs는 call2all에서 지난 4년간부터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논의에서 그치지 않는 행동 지향적 운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UUPGs의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미개척 미전도 종족에 대한 운동의 발자취의 첫걸음은 로잔 회의였으며, 암스테르담에서 가속화되었고, FTT 모임에서 기반을 세우고, 이제 call2all의 LA 국제 전략회의에 이르렀습니다. call2all 국제 전략회의에서 우리는 5만 인구 수를 가진 UUPG종족 그룹을 포함한 새로운 UUPG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 84 그룹: 아직 한번도 개척되지 않고, 단 한명도 아직 접근한 적이 없다. 우리의 행동이 시급한 그룹.
- ✓ 305 그룹: 채택은 되었으나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 당장의 적극적 행동 필요한 그룹.
- ✓ 626 그룹: 현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룹이다. 개척자들을 견고히 할 지원 필요.

## 6. 구전 언어 사용자 채택

다음은 에버리 윌리스와 제임스 그리넬쉬가 쓴 “구텐베르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발췌 사이트 <http://averywillis.org/orality.aspx>)

나는 오랫동안 구텐베르크의 개혁이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읽고 쓸 줄을 안다는 것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심각한 것을 발견했다. **인쇄술의 발명 후에 오백년 동안 오직 세상의 35%의 사람들만이 실제로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나를 놀라게 했다...여기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 본다. 만약에 당신이 사업하고 있고 그 사업의 주 고객이 되는 사람들의 67%가 읽고 쓸 줄은 모르고 말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사업 계획을 그들에게 맞추지 않겠는가? 분명 당신은 모든 노력과 예산을 그들에게 맞도록 조정할 것이다. 분명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사업방식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선교는 이 사람들을 의해 그 방향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가?**

21세기 초가 되어서야 선교 세계는 읽고 쓸 줄은 모르나 말은 구사하는 사람들이 지상 명령 성취의 중심 과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40억의 구전언어 사용자들이 구원의 대상, 즉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에 들어가야 함을 깨달은 것이다. 자,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교회와 선교단체는 이 과녁의 중심을 맞추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만약 구전 언어 사용자라는 의미가 익숙하지 않다면, 여기 쉬운 정의를 제시한다. 구전 언어 사용자란 문자가 아닌 소리의 언어 즉 말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환경에 살며, 또한 구전의 언어로만 최고의 학습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말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념, 유산과 가치들을 이야기, 드라마, 노래나 속담 같은 방법을 통해 전달한다. 그들은 자손들에게 자신들의 관습과 문화, 그리고 사회 구조를 이야기 방식을 통해 전해왔다.

# 7개의 주요 전략

이러한 사실은 지상 대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읽을 줄 모르거나 앞으로도 그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하는가? 혹은 글을 쓸 줄 모르는 이들에게, 문자 언어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전언어 중심 선교를 통해 문자 복음전도나 성경 번역 활동을 저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 반대가 맞는 말이다. 구전 언어권에서의 궁극적인 말씀 전달 전략은 말을 통한 접근이며, 중국에는 글을 읽고 쓰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말(horse)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마차를 준비하는 데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말을 준비해야 하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는 것이다.

**재고하라, 재창조하라, 재생산하라. 나는 만약 우리가 구전언어 사용자들만이 가진 독특한 필요를 채우기로 선택한다면, 또한 우리의 선교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들을 우선 순위로 둔다면, 우리의 지상명령 완수에 놀라운 진보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긴급히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하며, 구전 문화권에 대한 사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새로운 도구, 방법론, 접근법 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독특한 구전 문화권(구술로써 구속사를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는 독특함)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성경 이야기를 그들의 구전언어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들을 일으켜야 한다. 이 일은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며 민중들(서민들)에게도 접근이 용이할 것이다... 이것은 아직 구원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40억 사람들 사이에서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의 큰 소망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자료는 국제 구전언어 네트워크의 웹사이트인 [oralbible.com](http://oralbible.com)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사역에도 관심있으시다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ywamonestory.org](http://ywamonestory.org); [www.e3partners.org](http://www.e3partners.org); [www.davarpnpartners.com](http://www.davarpnpartners.com); [www.faithcomesbyhearing.com](http://www.faithcomesbyhearing.com); [t4global.org](http://t4global.org); [www.simplythestory.org/oralbiblestories](http://www.simplythestory.org/oralbiblestories); [www.storyrunners.com](http://www.storyrunners.com); [globalrecordings.net](http://globalrecordings.net); [www.twr.org](http://www.twr.org); [www.siuttraining.org](http://www.siuttraining.org); [www.imb.org](http://www.imb.org); and [www.story4all.com](http://www.story4all.com). A story-friendly Bible can be obtained at [www.sourceviewbible.com](http://www.sourceviewbible.com). David Joel Hamilton reformatted the text of the Bible in a full-color, movie-script layout to recapture the original dramatic narrative of God's Word. A great informative video on creating an oral Bible can be found at: [www.call2allmedia.org](http://www.call2allmedia.org). Search for "Oral Story Bible Animated Introduction."

## 7. 모든 사회영역속에 교회의 존재성 확립과 성장

미국 국제 선교센터 (US Center for Missions) 창시자인 랄프 윈터의 조사에 의하면 몇세기동안 비신자 대 신자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 그의 조사에 의하면 1세기말에 전세계에 있는 한명의 신자당 360명의 비신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기원후 1000년경에는 이 비율이 22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1500년경에는 이 비율은 69명으로 더욱 감소를 보였습니다.
- ✓ 19세기말에는 27명으로 비율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 ✓ 두번의 세계대전 이 후에도 조그만 진전을 보이며 이 비율은 21명으로 내려갔습니다.

- ✓ 1980년경에는 이 비율은 "지상 대 명령"의 완수를 위해 일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1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지상 대 명령의 완수가 실현 가능한 단계까지 다가온 것 입니다.

바나(Barna | [www.barna.org](http://www.barna.org)) 연구소의 진술에 따르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의 퍼센트를 측정하는 방식(종례의 예배 참석인원 통계)은 더는 유용하지 않다고 합니다. 가정교회, 직장사역단체, 인터넷 교회 같은 새롭고 다양한 형식의 믿음의 공동체들도 측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종례의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미국인들의 수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사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른 형태의 여러 믿음의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은 종례의 교회에 한주에 한번씩 참여하고, 가정교회도 참석하며, 여러 인터넷상의 믿음의 공동체와도 교제를 합니다. 이같은 현상을 기존의 측정방법에 도입하지 않으면, 현 방식은 굉장히 불확실한 통계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새로운 세대는 어떤 실제적인 것이 보이는 삶을 원합니다. 매일의 시간과 모든 영역 가운데 영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주일에 경험하는 것만 가지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사회에서의 실제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기를 열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세사람이 함께 하다 (마 18:20)'라는 말씀 속의 새 모델은 서로를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하도록 도우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10/40 지역에 사는 미개척 미전도 종족인들 뿐 아니라 현대를 사는 젊은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어떠한 모델방식이든지 간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걸쳐 교회의 존재를 확장시키는 것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더 이상은 사회의 영역이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묵인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없는 모든 것을 찾고, 또한 새롭고 적극적인 전략으로 공허한 그 곳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허한 곳은 단순히 지역적 차원뿐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 일터에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마켓플레이스에서, 학교에서, 정부에서, 스포츠의 영역과 집 안에서, 실험실에서, 대학의 교실에서, 지역 사회의 장소에서, 매일 매 순간 증거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책들을 참조 하십시오:

- ✓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 (사단과의 영적전쟁), 존 도우슨 저
- ✓ 예수님이 시장이라면 - 지역 사회 선교 전략, 밥 모피트 저
- ✓ T-월드: 변화된 교리와 변화된 세상을 위하여, 밥 로버츠 저

# 7개의 사회 영역

어떻게 하면 전 사회가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1975년 여름에 콜로라도 로키산맥에 있던, 로렌커닝햄(YWAM, 창립자)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로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 되는 7가지 사회 영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에 대한 계시를 접한 그는 들떠서 정신없이 노트에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CCC의 창립자이자 그의 좋은 친구인 빌 브라이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침 같은 시기에 콜로라도에 머물고 있던 그는 곧 로렌과 그의 부인인 달린을 저녁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로렌이 빌과 만나기로 했던 장소에 도착했을 때, 로렌은 빌에게 자신이 얻은 새로운 이해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짧게 인사한 후 그는 바로 자신이 적었던 노트를 보여주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빌은 말했습니다. “로렌, 방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믿지 못할거예요!” 그리고는 로렌이 보여 주었던 노트와 매우 흡사한 사회의 영향력 있는 영역들의 리스트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계시를 받은 그들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중요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음을 직감하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몇 주 후, 프란시스 웨퍼(라브리 공동체 설립자) 또한 비슷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를 같은 방향으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30년 정도가 지난 지금, 각 나라의 사회 영역을 기본으로 한 훈련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1975년도에 도입된 개념을 바탕으로 한 영역 훈련에 관하여 성경적 지식을 더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각 영역에 관한 책을 참조하십시오:

- ✓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emplate: Rediscovering God's Principles for Discipling Nations
- ✓ The Book That Transforms Nations: The Power of the Bible to Change Any Country
- ✓ The 9 to 5 Window
- ✓ The Book That Made Your World: How the Bible Created the Soul of Western Civilization
- ✓ Truth and Transformation: A Manifesto for Ailing Nations
- ✓ Discipling Nations: The Power of Truth to Transform Cultures
- ✓ LifeWork: A Biblical Theology for What You Do Every Day
- ✓ Transformation: How Glocal Churches Transform Lives and the World
- ✓ Real-Time Connections: Linking Your Job with God's Global Work
- ✓ How Should We Then Live? The Rise and Decline of Western Thought and Culture
- ✓ His Kingdom Come: An Integrated Approach to Discipling the Nations and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지금은 이 사회영역에 관한 메시지가 무르익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의 영역에 대한 부분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7영역, 8영역, 12영역으로 구분하는 해석) 기본적인 원칙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창세기 1:26-27)을 창조하신 것, 사랑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창조하셨고(사도행전 17:26-27), 사랑하시며, 그분은 나라의 변화가 모든 사회의 영역에서까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이것을 “영역”, “정신의 분야”, 혹은 “영역의 산” 등등 어떤 방식으로 부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개인들만큼이나 전체적인 인류에 상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개개인을 향해 보내기도 하셨지만, 한 부족이나, 도시, 나라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나라를 향한 마음으

로, 우리를 모든 사회의 영역과 개인의 삶의 영역 모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함께 일하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위해 아래의 3웹사이트를 참조 하십시오. [templateinstitute.com](http://templateinstitute.com); [www.revelationmovement.com](http://www.revelationmovement.com); and [www.reclaim7mountains.com](http://www.reclaim7mountains.com)

## 가정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으시고, 구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정이라는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단이 전 세계 곳곳에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 남용, 자아상실, 고아의 영, 버려짐의 영, 대화의 단절, 불순종, 부도덕, 학대 등등의 치열한 싸움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 가운데로 들어가 섬기고, 세우며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주신 참 목적들이 회복되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입니다.

### 주요 성경구절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수 24:14-15**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행 16:29-34**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되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 정부

하나님께서서는 정부를 나라 안에서 **정의를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라고 임명**하셨습니다. 통치자들은 피통치자(백성/국민)를 섬기라고 위임된 권한을 실행합니다. 신명기 17장 14~21절에서 찾은 “왕의 법”을 보면 권력의 대상에게 말, 아내, 금을 탐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가지를 탐하는 것이 곧 권력과 성, 그리고 돈에 있어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증거로 보며 또한 이것들이 통치자를 권력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가운데로 이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가지의 불법적인 가치를 섬김, 정결, 관용으로 바꾸시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아볼 때, 많은 정부의 리더들이 위의 세가지 불법적인 부분에 타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위정자들이 탐욕과 불의, 그리고 부패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을 나라 가운데 세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을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 33:12)”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나라가 이러한 복을 받도록 정부 속에서 섬겨야 합니다.

### 주요 성경구절

**신 16:18-2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

# 7개의 사회 영역

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라

**사 33:22** 대저 여호와와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와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롬 13:1, 3-4**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 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딤후 2:1-4**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 경제 (과학/기술/비즈니스)

경제의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기대는 **창지기적 모델**과 **공급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시작점은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발명이었습니다. 이 발명들은 각 사업의 생산, 상품화, 판매과정들을 통해 세상에서 상용화가 됩니다. 이 영역의 연구 및 생산 분야 모두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악에 떨어지기 이전에 주셨던 직업적 소명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두 가지 일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 적절한 이름을 부여하는 과학적인 노력이고(창2:19-20), 하나는 동산의 결실을 관리하는 농업 관련 업무였습니다(창2:15).

### 주요 성경구절

**창 2:15,19-20**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잠 10:4**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마 6:31-33**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딤후 5:18**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땅을 씹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샅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디도서 3:14**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 쓰기를 배우게 하라

과학은 경제 분야의 동력입니다. 이는 연구와 개발 등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이나 서비스를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부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성취는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산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관점으로 볼 때, 부는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경제의 영역은 끝이 보이는 형태가 아닙니다. 경제 영역은 새로운 혁신에 의해 끊임없이 확대 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는 상황)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참 경제는 지구의 가능성을 풀어내는 창조적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과학과 기술분야가 새로운 부의 가능성을 열면, 기업들이 이를 가지고 상품화, 생산, 판매를 통해 부를 창출 및 분배를 합니다. 이와같은 부의 창출과 분배는 이 지구상에서 삶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창지기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이 영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삶의 향상을 위해 혁신을 이루는 창조자의 모습을 우리 인간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위에서 이야기 한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의 영역을 거룩한 공급체로 쓰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는 창지기로서의 모습을 가졌을 때 가능합니다. 경제 영역은 지금 탐욕과 불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는 삶으로 부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각 사람의 삶과 관계를 위해 고결하고 깨끗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캠브리지의 주빌리센터의 설립자인 마이클 설루터는 경제 영역의 가장 밑바닥에는 관계의 향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The R Factor 라는 책 참조). 주빌리센터의 발행물 캠브리지페이퍼(18권 3호, 2009)를 보면 그는 다음과 같이 기고하였습니다. "경제적 제도 및 사회제도의 진정한 평가의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관계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경제의 성장이 아니라, 인류와 하나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성에 중점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 모두에 나와 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마 22:34-40)라고 단언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의 우선순위가 경제적인 부가 아닌 사랑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진정한 변화를 우리 사회 안에 그리고 경제의 영역 가운데 가져올 것인지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 종교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비**를 확대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적으로 종적으로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다른 종교적 신념들은 모두 마음과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장을 접어두고 시작하면, 우리가 사회로 나갈 때 "예수"라는 복음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를 입다"라는 이 한가지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서 화해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주요 성경구절

**렘 9:23-2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딤후 6:8**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고후 5:18-20**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약 1:26-27**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 7개의 사회 영역

## 교육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제자훈련**과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학교인증기구(GAAGlobal Accreditation Association)의 기초문서에서는 “훈련의 목적은 '어떤 지식을 다루는가?'보다는 한 학생의 진정한 변화이다. 우리는 모든 학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발견하고 난 후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은 학생들이 성경적-기독교적 세계관(예수님께서 직접 본보기가 되시며, 성경이 기본이 되는 삶) 안에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러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첫번째로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 주요 성경구절

**신 6:4-7**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시 145:4**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잠 1:8**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사 2:2-3**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벧후 1:5-8**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 미디어

미디어 영역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건강한 관계**의 확산과 **지혜**의 전달에 있습니다. 잡언에서는 의사소통이 가져오는 능력에 대한 간결한 격언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12:18)”, “온순한 혀는 곧 생명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잠 15:4)”,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등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말의 능력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뿐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의사소통의 능력의 한계는 실재 없이 탄생하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 엄청나게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소통하고 있는가? 소통이 삶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인가? 이것이 지혜를 전달하는가 아니면 어리석음을 나누고 있는가? 이를 통해 거룩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미디어 영역에서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쇄물, 동영상, 영화, 인터넷, 소셜미디어 같은 모든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돕고 세우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란다 콕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참조)

## 주요 성경구절

**잠 9:9-12**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약 3:2,13,16-17**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온유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 축제 (예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축제라는 삶의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소망**을 주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창 4:12)”의 말씀을 시작으로, 음악가나 시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통해 당시의 문화나 흐름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러한 예술적인 재능은 예언적 사역을 위해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이야기라는 방식으로 나누어질 때 사람들은 메시지를 더 쉽게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며, 때로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 심지어 가치관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술을 거룩한 도구로써 진리를 전달하며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시는데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야기라는 도구는 공동체를 세우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한가지 이야기를 공유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 한 목적을 위해 더 강력한 연합을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공유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감을 일으키며, 현재의 삶에 대해 도전하고 직면할 때 힘과 용기로 맞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주요 성경구절

**출 19:4-6**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롬 15: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전 13:13-14: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벧전 2:9-10**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 7개의 지리학적으로 본 전 세계

예수님의 지구 위에서 마지막 간곡한 부탁은 "가라(막 16:15, 마28:19)"입니다. 로렌 커닝햄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라'의 의미는 장소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새번역/롬 15:20)"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 그다음 유대, 그다음 사마리아, 마지막으로 땅끝까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떠한 순차가 있거나, 전략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각 문장에는 "그리고"가 쓰였지 "그 다음에"가 쓰이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역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상명령은 전 세계적이면서도 지역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상명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들었던 제자들의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것을 주목해 봅시다. 당시 제자들 모두는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습니다(행 1:11 - 갈릴리는 유대와 사마리아 북쪽의 로마지역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중에서 갈릴리가 빠진 것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삶을 사셨던 곳입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속에 갈릴리가 주요 사역지였다는 사실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라. 그리고 너희가 있지 않았었던 곳을 향해 떠나라. 세상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신약에는 그 후의 제자들의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채워진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들이 가보지 못했던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역은 7가지 주제 안에 혹은 7가지 사회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지리 즉 장소를 고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사역의 기초를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이는 지상명령의 완수를 위한 고려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사역 안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효과적이면서도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을 위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 속의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계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사야 42:10-11)" 자신이 있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며, 소리를 높이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사역 목표는 저 해수면에서부터 산꼭대기까지이며, 거의 아무도 있지 않는 사막 같은 곳에서부터 대도시까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땅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끝을 채우며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를 외칠 때,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사 42:2)."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님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맹을 떨치신다. 전쟁의 함성을 드높이 울리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신다(사 42:13)."라는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외침

의 소리로 그분을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세계 모든 곳에서 외쳐야 할 때입니다. 믿는 모든 성도가 모든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 241 나라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리학적으로 세상을 나눠 보려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질문을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지정학적인 자신의 나라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브라질에서 왔어요, 나는 중국에서, 나는 이집트에서 왔어요"

그렇다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존재할까요? 나라를 나누는 기준은 지역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요즘처럼 매일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완전한 독립 국가에서부터 속국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라의 모습이 실재하다가도 사라지곤 합니다. 그린란드, 타이완, 사하라, 부겐빌레아, 카슈미르등이 이러한 예입니다. 혹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우리가 말하는 나라를 '나라'라고 부르지 않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위에 언급한 관점을 적용해 본다면,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목록이 존재합니다. 남수단을 포함한 최근 보충된 자료에 의하면, 유엔에는 193개국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림픽에는 204개국, 국제 축구 연맹에는 208개국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어떤 유명한 여행 단체에서는 321개의 독특한 국가 목록을 사용합니다. 저는 중도적인 방법을 택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관점으로 나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목록에는 총 241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위의 관점에 입각한 나라들은 총 몇 개국 일까요?

###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70개국:

알제리, 앙골라, 바레인,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브라자빌, 콩고 자이르,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이집트,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디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공화국, 모리타니아, 마요트섬,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연합국, 르완다, 사하라,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 아라비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소말리아 랜드, 남아프리카, 남 수단, 스페인 북 아프리카, 수단, 스와질란드, 시리아,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아랍 에미리트 공화국,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남극 대륙과 남극해지역의 4개국: 남극대륙, 버뮤다, 포클랜드 제도, 성 헬레나.

아시아와 인도양의 40개국: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부탄, 영국령 인도양 식민지,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크리스마스 랜드, 코코스(킬링)섬, 동티모르,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모리셔스, 몽골리아, 미얀마, 네팔, 북한, 파키스탄, 필리핀, 세이셸 제도, 싱가포르, 남한, 스리랑카,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호주 및 대서양의 26개국: 사모아 제도, 호주, 부겐빌레아, 쿡아일랜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피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괌, 키리바시, 마셜 군도,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노퍽 섬, 북 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파파뉴기니, 핏케언 섬, 솔로몬 제도, 사모아, 토켈라우 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윌리스 푸투나 제도.

중 남부 아메리카의 20개국: 아르헨티나,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 7개의 지리학적으로 본 전 세계

프랑스령 기아나, 과테말라, 가이아나, 혼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르과이, 베네수엘라

**유럽 및 지중해의 52개국:**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로루시,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해협제도, 크로아티아, 키로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페로스 제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롤터,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맨섬, 이탈리아, 코소보,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섬,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북키프로스,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공화국, 스페인, 스페인 바르드 & 안 미이엔 제도,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바티칸.

**북 아메리카와 카리브 제도에 있는 29개국:** 앵골리아, 앤티가바바다 공화국, 아루바 섬, 바하마 제도, 바베이도스, 버진 아일랜드, 캐나다, 케이먼 제도, 쿠바,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그린란드, 그레나다, 과들루프 섬, 아이티, 자메이카, 마르티니크, 멕시코, 몬세라트, 안틸리스 제도, 푸에르토리코, 세인트 키츠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피에르미켈론,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턱스 앤 케이코스, 미국,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 4K 지도 오메가 존

4K 오메가라고 불리는 세계 지도는 지금까지의 call2all 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지도의 목적은 무엇 일까요? 이 지도는 세상을 보고 그 필요에 반응하는 것, 사람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아는 것, 그리고 모든 종족에게 나아가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상 대 명령 완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이 어느 곳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또한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4kworldmap.com](http://4kworldmap.com)에 방문하여 필요에 따라 반응하는 이 지도를 사용해 보십시오.

왜 복음전파를 위한 새로운 지도가 필요할까요? 먼저 전 세계의 나라의 면적은 각기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작은 독립국은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트케엔 섬이며 이 나라의 주민은 백 명 미만입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인 중국에 13억의 시민이 살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됩니다. 지상명령 완수라는 목표 아래 피트케엔 섬과 중국을 비교하는 것은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바르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활동의 필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를 더 세밀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지리학적인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련의 241개국으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대신에, 4K 지도는 우리에게 약 사천 개의 오메가 존으로 구성된 세상을 보여 줍니다. 4K 지도에서는 피트케엔 섬은 단지 하나의 오메가 존으로 구분하지만, 중국은 800개 이상의 오메가 존으로 구분합니다.

이 지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4K 지도는 여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도와 예언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call2all의 회의 기간에는 4k 지도를 보며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지도이지만, 지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여 세계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참가자에게는 call2all의 회의 기간 중 가장 중요하고도 설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구 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듣고 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새롭고 놀라운 많은 일들이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둘째로 4K 지도는 비전과 전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의 발간 후, 많은 단체가 지상 대 명령의 완수를 향한 선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4K 지도를 사용하기 시

작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 세계에 많은 리더가 자신의 선교 활동 문제점과 복음이 미약한 지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사항 등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K 지도 플러스

**4k 오메가 존**은 국가들의 기존의 지정학적인 구분을 기초로 합니다. 4k 플러스 지도는 한 국가가 특정한 인구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다시 주, 지방, 지구 같이 그들이 부르는 형태의 방식으로 재분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인구가 많은 지역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메가 존은 기본적으로 기독교화된 지역이 비기독교화된 지역에 비해 크게 배당되는 경향이 있으며, 각각의 오메가 존은 평균적으로 175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4k 플러스 지도는 더욱 상세하고도 정밀한 재 분할 방법을 사용하여 6만 개의 지역들을 보여줍니다. 이 플러스 지도는 241개의 국가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도나 4,000개의 오메가 존을 나타내는 4k 지도를 뛰어넘는 실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4k 플러스 지도에서 인지하는 지역들을 "오메가 지구"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지도의 목적은 더 깊고 세밀하게 전도의 영역을 넓힘으로써 복음이 전하지 않거나 듣지 못한 지역이 한 곳도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더 세밀한 구분은 뚜렷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지도에서 간과될 수 있는 필요를 이 지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 4k 플러스 지도는 태평양 지역 26개 섬 국가의 선교에 가장 큰 필요를 제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그리고 폴리네시아 지역의 거주 섬 1600여 개에 대한 정밀한 자료를 제공하여, 태평양 지역에 있는 모든 섬, 더 나아가 태평양 지역 모든 사람이 전략적인 선교 계획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4k 플러스 지도의 획기성과 효율성은 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

지상 대 명령은 **모든 족속**(마 28:19)뿐 아니라 **만민**(막 16:15)에게 전파되어야 하기에 기존의 지리학적 구분 뿐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 또한 필요합니다. 첫 세 단계 (241개국 | 4,000개의 4k 오메가 존 | 60,000개의 4k Plus 오메가 지구)는 모두 행정 체제에 기반을 둔 지리학적 구분 방법입니다. 그 다음 세 단계는 다른 세 가지의 사회영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계속해서 더욱더 세밀하고 정교한 접근법을 통해 더욱 확실하고 자세한 자료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경제 중심의 **공동체**)
2. 교육 (교육 안에서의 **이웃**)
3. 가정 (이 구분에 까지 이르게 되면 지상명령의 완수 직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도시 지역들은 가장 초창기부터 신성한 영역, 기본적인 안전의 보장, 그리고 상업 시장의 유치 등의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도시의 역사, 조엘 코트킨)." 사회 영역의 측면에서 구분해 볼 때, 조엘은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영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측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 관점의 대표적인 예인 시장은 우간다 시골의 농산물 직매장에서 경험하든, 서양국가의 대도시 상가에서든, 그 모양과 방법에 상관없이 한 사람의 삶과 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시장은 아고라, 혹은 광장이라고 표현되었고, 예수님과 사도바울의 사역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마가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따르면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

# 7개의 지리학적으로 본 전 세계

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막 6:56)라고 합니다. 누가의 바울에 대한 증언에도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행 17:17)"라고 마가의 증언과 흡사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장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바울 또한 사람들이 모이는 경제지역인 시장을 자신의 사역 중심지로 선택했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함을 보여 줍니다.

## 이웃

우리는 지상명령이라는 목표를 더 다양한 차원으로 진행하기 위해 241개의 나라를 4,000개의 오메가 존으로, 거기에서 6만 개의 오메가지구로, 다음으로 2백만의 경제지구(각각의 시장경제지역)로, 그리고 학교 중심의 이웃 공동체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부모가 그들의 자녀가 최고의 교육 환경에 있기를 열망하며 그 가운데서 자녀가 그들의 모든 잠재 능력을 끌어내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추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러한 열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9장 48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나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르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지역의 학교는 모든 사람의 중심지였습니다. 학교는 그 크기를 따라 시골의 한 교실에서부터 도시지역의 큰 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가집니다. 유엔에서 발표하기를 현 지구상 인구의 반이 25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상명령을 완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지구상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현재를 바꿀 뿐 아니라 미래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 가정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인도의 신부 불태우기, 파키스탄의 명예살인, 중국의 한 자녀정책, 아프리카의 HIV/AIDS 고아들, 라틴아메리카의 남성우월주의, 서양의 혼전 관계, 많은 나라의 동성 결혼 법, 이미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태와 같이 가정의 변형에 반하는 엄청난 나고도 치열한 공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Telegraph에서는 중국의 이혼율이 1985년 본격적인 경제 개방 후에 4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1,000명당 0.4%에서 1.85%로 증가). 그러나 유럽연합(EU) 중 가장 높은 이혼율을 가진 영국(2.85%)과 미국(3.6%) 보다는 아직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미국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미국 남성의 9%가 이혼했으며 미국 여성은 11%가 이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ww.divorcewizards.com](http://www.divorcewizards.com)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초혼에서 이혼까지의 기간이 평균적으로 길어야 7.8년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미혼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약 32.8% 이릅니다. 유럽 공동체 위원회에 따르면, 1990년은 17.4%의 아이들이 혼외에서 출생했습니다. 반면, 2009년에는 37.4%의 아이들이 혼외에서 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지난 몇년간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러한 혼외의 출산이 EU의 참여국들 중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유럽에서는 주요 출산율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인구총조사에서는 미국에 약 1370만의 편부모들이 있으며 2180만의 아이들이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21세 이하의 아이들 중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BC 뉴스는 1,700쌍의 결혼한 부부들이 물질주의가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으며, 또한 "물질주의가 의미없는 대화, 부정적인 갈등, 관계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결혼의 안정감의 부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의 가정의 규모는 매우 다양합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이 가정 당 평균 5.6명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중국으로 평균 3.1명, 인도는 4.8, 나머지 아시아 지역은 보통 5.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평균 5.3명, 라틴 아메리카는 평균 4.8명, 유럽의 평균은 2.3명입니다. 북아메리카와 호주는 각각 2.6명, 2.5명으로 집계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는 2억 5천의 가정이 있으며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는 5억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에는 10억의 가정이 있고(4억의 중국 가정 포함) 이는 오늘날 총 1조 7천 5백억 개의 가정으로 계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갈망은 그들 각자가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 하였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목적에 핵심입니다. 에덴동산 시절,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이 움직이면 사회가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있는 곳에서 가정의 원칙이 튼튼히 세워지도록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가 다음 세대를 사랑과 따뜻함으로 보살피도록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게 이웃들 중에 무너지고 상처받은 가족들을 회복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택하신 "자비의 아버지(고후1:3)"와 같이,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참뜻을 드러내는 성숙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지상명령 전략일수록 세계 인구를 구성하는 1조 7천 5백억 개의 가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본받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대상 16:43)

## 개인

궁극적인 지상명령은 모든 개개인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의사결정을 내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약 70억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며(벧후 3:19)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딤후 2:4).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딤후 2:6)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개개인을 위해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기독교 대헌장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절대적인 것으로서 다음의 기본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 기독교 대헌장(The Christian Magna Carta)을 확인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1.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도록 하게 한다.
2.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도록 한다.
3.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매주 정기적인 모임과 성경적인 가르침과 예배를 갖게 하는 기독교 모임을 갖도록 세운다.

4.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어린이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을 행하도록 한다.
5.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적인 필요(음식, 음료수, 의류, 주거, 보건위생)들을 채우도록 한다.
6.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영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육체적, 성취의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이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우리 자신을 위탁한다.

크리스천 리더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의 암시적인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삶을 고양할 만한 영향을 주려 한다면, 개개인에게 복음을 통해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1981년에 로렌 커닝햄은 이 암시적인 권리들을 기독교 대헌장이라는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이 여섯개의 개요는 복음이 모든 이의 삶에 온전하게 영향을 끼쳐야 할 부분을 보여줍니다.

## 마치는 글

call2all 운동은 실행에 핵심을 두고, 성령의 주권 아래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새로운 전략을 탁상공론이 아닌 지금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머물며, 아래와 같은 일에 참여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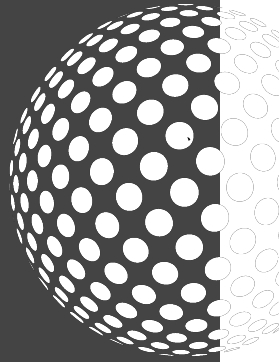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곳으로 뛰어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직접적인 이웃이든 먼 이웃이든 주위의 사람들의 필요와 고통에 둔감해지면 안됩니다. 교회의 존재는 복음과 자비의 행동을 통한 섬김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우리는 제자로 부름 받았고 그것은 주님을 본받고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겸손하며 열린 태도를 유지한다면, 급변하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최상의 효과를 내는 전략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계를 벗어나십시오! 무무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당신의 지리적, 언어적, 세대적, 정치적, 문화적 또 다른 영역의 경계와 틀 안에서 벗어날지 생각하십시오. 어떠한 경계들도 복음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 3:14)”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지상명령 완수에 있어서 이미 승리의 팀에 속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계 19:6)”,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사 9:7)”,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계 11:15).”라고 말씀에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계 7:9) 서는 그 날을 향해 지금 함께 나아 갑시다.



Call2all 777 for call2all congresses  
Compiled by David Joel Hamilton  
Copyright © 2011/2012, David Joel Hamilton